

## ‘소주에 이어 맥주까지’ 서민 술값 줄줄이 인상

**오비맥주 6년 만에 7.7% 인상  
보해 등 소주 가격도 인상 러시  
서민술 ‘소맥’ 1만원대 현실화**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에 이어 맥주 가격까지 잇따라 인상되면서 애주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국민술로 불리는 ‘소맥’ 값이 1만원대를 넘보고 있다.

오비맥주는 2일 국산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오는 8일부터 평균 7.7%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의 인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종 원료와 부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해 더이상 비용 압박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맥주의 주 원료인 국제 보리 가격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33% 급등했고 가정용 캔 제품의 핵심소재인 알루미늄도 지난해 국제시세가 이전 년도 대비 45%나 폭등했다는 것이다.

지역 소주업체인 보해양조도 2일부터 ‘일새주’ 등 주요 제품 출고가를 14.6%(평균 100원 가량) 인상한다. 보해양조가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한 것은 5년6개월여 만이다.

보해양조는 소주원료인 주정(알코올) 가격이 10년 만에 7.8% 오르며 병뚜껍과 박스 등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23일 ‘참이슬’과 ‘진로’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7.9%(100원 가량) 인상하면서 소주 업계의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소주 출고가 인상은 연쇄적으로 도매가에 이어 마트나 식당, 주점 등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당 등에서는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대를 넘나들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병당 1200~1800원 선이었던 가격을 100원 가량 올리면서 출고가 인상폭을 반영했다.

서민들이 즐겨찾는 ‘소맥’을 식당 등에서 주문할 경우 1만원대 가격이 현실화됐다. 이로 인해 직장인 애주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연쇄 물가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경쟁업체가 지난 2019년 소주 출고가를 인상했을 당시에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을 억제했다”며 “하지만 제조원가가 너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한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진기자

##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설렘과 긴장 새 학기 첫 등교

**학교, 자가검사 키트 상시 구비·시차 등교 ‘방역만전·밀집 최소화’  
학부모 “코로나19 확산세 심해 염려되지만 학교 방역 지침 신뢰”**

“마스크 쓰는 것은 힘들지만, 친구들과 만날 생각하면 즐거워요.”(관련기사 9면)

코로나19 확산 속 전면 등교 첫날인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등학교.

광주지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일일 확진자가 5000명 대를 넘어선 가운데 학생들은 긴장감 속에서도 환한 표정으로 등굣길에 올랐다. 학생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학년 별로

10분 간격의 시차를 두고 등교했다.

학생들은 두 달여 만에 만난 친구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한 학생은 교문 앞에서 “같은 반 됐다”며 주먹을 맞했다. 아까등무를 하려다 멈춘 한 뒤 한 발짝 떨어져 대화를 주고 받았다.

교사들도 “안 본 사이 많이 자랐네”라며 학생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다.

초등학교에 첫 발을 딛은 1학년 학생들은 한 손엔 신발 주머니를 들고, 한 손은 부모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다. 한 학생은 긴장이 되는지 연신 부모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교문 앞에서 또래 친구 무리를 보자 슬그머니 부모 손을 놓은 뒤 함박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러면서 씩씩하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외친 뒤 발걸음을 옮겼다.

교사는 신입생들이 온 순서대로 이름과 반을 확인한 뒤 교문으로 안내했다.

한 부모는 교문 입장에 앞서 자녀 마스크를 고쳐 씌우면서 “우리 ○○이, 잘 할 수 있지? 마스크 벗지 말고”라며 방역 수칙을 재차 당부했다.

1학년 이모(8)군은 “학교에서 새 친구들 만날 생각에 신난다”며 “마스크가 답답하긴 하지만, 항상 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모는 교실까지 자녀를 배웅하려 했지만, 방역 지침 상 교문 앞에서 입장이 통제됐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걱정되는 듯 먼 발치에서 한참을 서성이기도 했다.

1학년 손주를 둔 50대 여성 권모씨는 “코로나19라고 마냥 집에서만 지낼 수도 없고 교육 문제로 고려해 학교를 보낸다”며 “확산세가 심하긴 하지만, 학교의 철저한 방역을 믿는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문 안에서 현관까지 20m거리에서 “한 줄로, 띄엄띄엄 걸으세요”라며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학생들은 현관 앞에서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한 뒤 교실로 들어섰다.

교실에선 자가검사키트 배부가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1m 간격으로 띄어진 책상에 앉은 채 교사의 안내에 따라 검사 방법을 배웠다.

학교 관계자는 “자가진단 키트 상시 구비와 급식실 지정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을 펼치려고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나란히 나란히** 새학기 전면 등교 첫날인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에 광주·전남 주요 대학 정원 미달

학령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주요 대학 대부분이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일 광주·전남 주요 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의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4251명 모집에 4213명이 등록을 마쳤다. 최종 등록률은 99.11%로 지난해 96.67%보다 소폭 올랐지만 정원에서 38명이 미달했다.

광주 용봉캠퍼스에선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인공지능학부에서 1명씩 총 3명이 미달됐다. 여수캠퍼스는 해양바이오식품학과 등 10개 학과의 정원 35명이 미달됐다.

조선대는 신입생 4385명을 모집해 4371명이 최종 등록했다. 9개 학과, 14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등록률은 99.7%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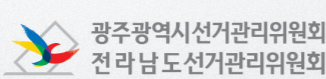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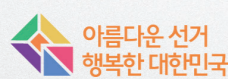
호남대는 신입생 정원 1566명에 1494명이 등록, 충원율은 95.4%다. 동신대는 1566명을 모집해 1455명이 등록했다. 11개 학과 111명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충원율은 92.9%로 집계됐다. 송원대는 700명 모집에 699명이 등록했다. 치위생학과에서만 1명이 미달, 충원율은 99.85%로 파악됐다. 광주여대는 969명 모집, 94.7%에 해당하는 906명이 등록했다. 자율전공학부·작업치료학과·AI융합학과 등 6개 학과가 정원 외 모집을 비롯해 63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목포대는 올해 신입생 1694명 모집에 나서 1438명이 등록을 마쳤다. 40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사전투표

**3월 4일(금)~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